

## 어머니같은 강을 지키고,수자원을 돌보자

1. 자치단체명 : 헤이룽장성 (黑龍江省)
2. 발표자명 : 순 지보 (SUN Zhi bo)  
(하얼빈시송레이중학교 2년,동북아시아중학생환경체험단)
3. 활동기간 : 2011년 7월
4. 활동장소 : 하얼빈 송화강
5. 활동참가인원 : 약 500명
6. 활동명 : 어머니같은 강을 지키고,수자원을 돌보자
7. 발표요지

### (1) 활동내용

어머니같은 강을 지키고,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며,시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6·5 세계환경의 날에 우리는 하얼빈시 환경보호국이 주최하는 송화강 연안의 백색쓰레기 (발포스틸렌제 용기나 비닐봉투) 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머니같은 강을 지키고,수자원을 돌보자」라는 환경보전 공익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하얼빈시의 환경직원이 우리에게 순환이용 가능한 모자,장갑과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고, 모두 함께 송화강변의 발포스틸렌제 용기나 비닐봉투를 수거했습니다. 대량의 백색쓰레기로 뒤덮혀 있던 해안이 깨끗해졌습니다. 한 학교에서 회수한 쓰레기만으로 트럭 두대 분량이 되었습니다.



## (2) 활동후 감상

송화강은 우리들에게 어머니 같은 강입니다. 수자원을 지키지 않으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발포스틸렌류나 플라스틱류의 쓰레기는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강으로 들어가면 하천수가 점점 오염됩니다. 그러나 이 발포스틸렌제 용기나 비닐봉투류의 쓰레기는 우리 인간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같은 송화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1 초·중학교에서 환경교육과 보급계발에 좀더 힘을 쏟을 것.
- 2 환경관리조례를 제정해 평상시의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
- 3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보급계발을 할 것. 여러가지 이벤트나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지식을 보급시킬 것.
- 4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어 나갈 것.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로 바꾸어 나갈 것.
- 5 서로 감독하면서 수자원을 파괴하는 것 같은 행위가 있으면 지적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할 것.